'코리안 좀비'정찬성 1라운드 TKO승



포효하는 정찬성 2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'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' 메인카 드 페더급경기에서 정찬성이 에드가에게 TKO 승리를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.

'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 메인이벤트'서 3분18초만에 세계4위 프랭키 에드가 눌러

'코리안 좀비'정찬성(32·코리안좀 비MMA)이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UFC 대회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 식했다.

정찬성은 2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 관에서 벌어진 종합격투기 대회 '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' 메인이 벤트에서 프랭키 에드가(38·미국)에 게 1라운드 3분 18초 만에 화끈한 TKO승을 거뒀다.

페더급 랭킹 6위인 정찬성은 애초 브라이언 오르테가(28·미국)와 대결 할 예정이었으나 오르테가가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됨에 따라 상 대가 에드가로 바뀌었다.

페더급 랭킹 4위로 정찬성보다 두 계단 높은 에드가는 UFC의 살아 있 는 전설로 꼽힌다.

라이트급 타이틀 방어에 세 차례 나 성공했고, UFC에서 17승을 거두 며 역대 다승 공동 10위에 올라 있 다. 정찬성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가 분명했기에 힘든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찬성은 통쾌한 1라운 드 KO승으로 전망을 멋지게 뒤집었 다. 이로써 정찬성은 지난 7월 헤나 토 카네이루를 1라운드 TKO로 꺾 은 데 이어 2경기 연속 1라운드 KO

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고 옥타 곤에 들어선 정찬성은 1라운드 초반 부터 탐색전 없이 정공법으로 나섰 다. 에드가는 자신의 장기인 레슬링 을 살리기 위해 몇 차례 태클을 시도 했지만, 정찬성은 그때마다 몸을 뒤 로 쭉 빼며 버텨냈다.

태클 시도를 무력화한 정찬성은 한층 자신 있게 타격전에 나섰다. 그 결과 경기 시작 1분도 안 돼 어퍼컷 에 이은 좌우 연타로 에드가를 고꾸

하지만 정찬성은 에드가가 도망치 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. 정찬성은 에드가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곧 바로 좌우 원투 펀치를 정확하게 날 려 두 번째 다운을 빼앗아냈다.

정찬성이 쓰러진 에드가에게 무자 비한 파운딩 펀치를 날리자 결국 주 심이 더는 기다리지 않고 경기를 중 단시켰다.

정찬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"나 는 (페더급 챔피언인) 볼가노프스키 를 원한다"며 "이렇게 한국에서 열 리는 UFC에서 메인이벤트에 나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"고 소감을 전 한 뒤 눈물을 흘렸다.

'굿바이 이세돌' AI 최종 대국서 패배

181수 만 아쉽게 불계패 24년 현역기사 생활 마감

지난 25년간 반상을 호령했던 이세 돌(36)이 인공지능(AI)과의 최종 은퇴 대국에서 아쉽게 패배했다.

이세돌은 21일 자신의 고향인 전 라남도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 트에서 열린 NHN 바둑 AI 한돌과 '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'치수고치기 3번기 최종 3 국에서 181수 만에 불계로 패했다.

이세돌은 치열한 자신의 기풍대로 곧바로 우하귀에 파고들어 초반부터 불꽃 튀는 수 싸움을 벌였다.

우하귀 접전에서 이세돌은 상당한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2선에 붙이 는 묘수를 발견해 대마를 살려냈다.

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변 5점이 잡히는 손해를 입어 출발 당시 90%-10%였던 승률 그래프는 어느덧 70% -30%로 한돌이 추격했다.

우하귀에서 득점한 한돌은 우변과 우상귀를 정리한 뒤 좌상귀의 3·3을 파고들어 다시 집을 챙겼다.

세 귀를 돌아가며 실리를 차지한 한돌은 90여수쯤에 이르러 좌상귀에 이어 상변마저 파고들자 승률 그래 프가 50%를 넘어섰다.

2점을 깔면서 덤7집반을 제공하는 이세돌은 한돌보다 12~13집가량 유



이세돌이 21일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은퇴 대국 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

리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100수가 넘어가기 전에 역전을 허용한 것이 다. 형세가 불리해진 이세돌은 상변 에서 패를 걸며 승부수를 띄웠다.

패싸움의 불똥은 하변으로 이어졌 고 집에서 뒤진 이세돌은 하변 백돌 을 잡기 위해 마지막 총공세를 펼쳤 다. 그러나 한돌이 가벼운 행마를 하 며 포위망에서 벗어나자 이세돌은 돌을 던지고 말았다.

1995년 7월 제71회 입단대회를 통 해 프로기사가 된 이세돌은 지난달 한국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4 년 4개월간의 현역 기사 생활을 마 감했다. 이세돌은 대국 후 "바둑 팬 들께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 린다"라며 "바둑 외적으로는 떠나지 만, 많이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"고



사진=서귀중앙초등학교 제공

서귀중앙초 꿈나무핸드볼대회 동메달

서귀중앙초등학가 제4회 김종하배 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조 2위로 8 (대한핸드볼협회 명예회장) 전국꿈 나무핸드볼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

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 초 등학교 19개 팀이 참가했다. 서귀중 앙초는 5학년 강동호와 김레오, 김태 현, 박은찬, 이정기와 4학년 고한민, 오상현이 팀을 이뤄 출전했다.

서귀중앙초는 대회 예선 D조 경기

강에 진출했다. 이어 무안초등학교 를 16-11로 넘어서며 준결승에 올랐 지만 대회 우승팀인 진천 상산초등 학교에 17-21로 아쉽게 지며 3위를 차지하게 됐다.

서귀중앙초 관계자는 "이번 성과 를 통해 핸드볼 명문 서귀중앙초의 명예를 드높였다"면서 "선수 스스로 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"고 말 했다. 김지은기자 jieun@ihalla.com

제주 5연패 좌절… 아름다운 승부 피날레

KBS2

6:00 걸어서 세계속으로(재)

6:50 생방송 아침이 좋다

8:00 KBS 아침 뉴스타임

9:00 꽃길만 걸어요(재)

11:00 살림하는 남자들(재)

9:40 무한리필 샐러드

10:40 지구촌 뉴스

12:05 제보자들(재)

세상을 걷다 스페셜

13: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15: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

16:00 무한리필 샐러드(재)

15:00 KBS 뉴스타임

17:00 영화가 좋다(재)

18:00 KBS 경제타임

18:30 2TV 생생정보

옥탑방의 문제아들 1부

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

〈공동경비구역 JSA〉

22:50 개는 훌륭하다 2부

23:30 한국영화 100년

더 클래식

19:50 우아한 모녀

20:30 글로벌24

20:55 성탄기획

21:35 성탄기획

23:40 저널리즘 토크쇼 J(재) 22:10 개는 훌륭하다 1부

15:30 TV 유치원

13:10 트레킹노트

KWBL 휠체어농구 챔피언전 서울에 종합전적 1승2패 석패

제주특별자치도가 2019 KWBL 휠 체어농구리그 4연패에서 멈춰섰지만 투혼을 발휘하며 아름다운 승부를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.

제주특별자치도(이하 제주)는 22 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(3전 2승제)에 서 서울시청에 59-73으로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.

제주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출범 한 휠체어농구 리그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우승을 차지하며 '제주천하'를 누렸고, 이번에 5연패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정상문턱에서 물러섰다.

제주는 이날 3차전에서 팀의 기둥

KBS1

6:00 KBS 뉴스광장

7:50 인간극장

8:25 아침마당

9:30 KBS 뉴스

7:35 KBS 뉴스광장 제주

10: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11:00 걸어서 세계속으로(재)

11:50 생활의 발견 스페셜

12:00 KBS 뉴스 12

14:00 KBS 뉴스

16:00 사사건건

17:00 KBS 뉴스 5

17:30 동물의 왕국

18:00 6시 내고향

19:00 7 오늘 제주

19:40 우리말 겨루기

20:30 꽃길만 걸어요

21:00 KBS 뉴스 9

22:00 가요무대

23:00 더 라이브

21:35 KBS 뉴스 9 제주

13: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칙

13:50 KBS 재난방송센터

14:10 제주시청자음악회 Ⅲ

15:40 화산도 식물이야기(재

〈나의 기타이야기〉

인 김동현(23점·16리바운드)과 노 장 김호용(16점) 등이 분전했으나 상대의 슈터 조승현(29점)을 효과적 으로 봉쇄하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 다. 제주는 2쿼터까지 37-41로 추격 하며 5연패 달성을 향한 강한 집념 을 불태웠지만 3쿼터 들어서면서 상 대의 강력한 수비와 외곽포에 밀리 며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

앞서 제주는 지난 20일 치러진 차전에서는 김동현이 25점을 쓸어 담고, 김호용(18점)이 뒤를 받치며 67-60으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 다. 그러나 21일 열린 2차전에서는 김동현 혼자 24점을 기록하며 분전 했으나 다른 선수들이 뒤를 받치지 못하면서 44-69로 완패해 최종승부 를 3차전으로 미뤘다.

제주는 올 시즌 팀의 주축인 김호

MBC

7:20 MBC 뉴스투데이 제주

8: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

10:45 드림스컴트루 프로젝트

프렌즈 스페셜

최고의 하루 with

6:00 뉴스투데이 1부

6:25 뉴스투데이 2부

9:30 930 MBC 뉴스

12:00 12 MBC 뉴스

스페셜

13:50 2시 뉴스 외전

16:20 나쁜 사람(재)

17:00 5 MBC 뉴스

17:25 들엄시민 제주어

12:20 자치분권으로 꿈꾸다

13:20 헬로키즈 동물교실2(재)

애니메이션 스페셜

18: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

20:55 주X말의 영화 : 잠은행

21:50 마이 리틀 텔레비전

22:30 마이 리틀 텔레비전

V2 1부

V2 2부

23:10 언니네 쌀롱 1부

23:50 언니네 쌀롱 2부

18:25 생방송 오늘 저녁

19:30 MBC 뉴스데스크

15:20 뽀뽀뽀 모두야 놀자

9:45 기분 좋은 날

7:50 나쁜 사랑



22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19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십 2차전 서울특별시 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기에서 제주 김호용이 슛을 시도하고 있다. 연합뉴스

용과 송창헌의 부상으로 리그 중반 까지 3승5패로 부진에 빠지면서 챔 피언결정전 진출이 불투명했다. 하 지만 막판 4연승으로 서울시청(10승 2패)에 이어 7승5패를 기록하며 2위 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. 고양

EBS1

7:30 뽀롱뽀롱 뽀로로

10:50 최고의 요리비결

14:55 꼬마버스 타요

17:20 그림을 그려요

21:50 EBS 다큐프라임

7:00 김덕기의 아침뉴스

7:30 김현정의 뉴스쇼

12:00 CBS낮종합뉴스

12:05 찬양이 있는 숲길

17:05 시사매거진 제주

18:00 CBS 저녁종합뉴스

18: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

22: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

KCTV

13:30 생명의 샘

15:00 CBS 뉴스

21:35 라디오강단

7:00 KCTV 뉴스

8:00 KCTV스페셜

13:00 러브인 제주

17:00 KCTV 뉴스

18:00 KCTV스페셜

18:30 내 별명은 대토령

19:00 KCTV 뉴스 7

9:30 취미로 먹고 산다

10: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

12:40 KCTV 시청자세상

15:10 스포츠 당구 더 레슨

제주 CBS FM 93.3Mbz

19:00 스파이더맨

20:00 머털도사

16:10 최고다! 호기심딱지

15:10 로보카 폴리

8:00 딩동댕 유치원

9:30 원더볼즈

14:45 몰랑

JIBS/SBS

6:00 모닝와이드 1부

6:25 모닝와이드 2부

7:35 모닝와이드 3부

8:35 맛 좀 보실래요

10:30 살맛니는 오늘

12:00 SBS 12뉴스

12:40 JIBS 뉴스

12:50 동상이몽2

14:00 뉴스브리핑

17:00 SBS 오뉴스

17:45 JIBS 뉴스

18:00 순간포착

19:00 네모세모

22:00 VIP 1부

22:40 VIP 2부

23:10 동상이몽2

23:50 동상이몽2

20:00 SBS 8 뉴스

20:35 JIBS 8 뉴스

20:55 생활의 달인 1부

21:30 생활의 달인 2부

너는 내운명 1부

너는 내운명 2부

12:25 민방 네트워크 뉴스

너는 내 운명(재)

16:00 클릭! NOW 제주(재)

세상에 이런일이(재)

11:00 꾸러기 탐구생활

11: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

7:20 JIBS 뉴스

9:10 좋은이친

10:10 SBS 뉴스

홀트와 7승5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맞대결에서 앞서 극적으로 챔프전 티켓을 손에 넣었다.

한편 휠체어농구리그는 춘천시청 이 창단하면서 내년부터 6개팀이 참 가한다. 조상윤기자 sycho@ihalla.com

오늘의 운세 23일



경기대 평교원 교수(010-5233-6136)

김종상 지단(知旦) 작명역학 원장



36년 언행을 자제하고 흉을 보지 마라. 48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. 60년 찌든 과욕의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자세가 필 요한 날. 72년 업무나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여 효 율성을 저해하니 섬세함이 필요. 84년 친구따라 강 남간다는 속담에 후회가 있는 날이니 자중하라.



37년 건강회복 약물의 효과가 있으니 길하다. 49년 업무나 일에 중단이 있으니 차후 계획을 긍정적으 로 철저히 세워라. 6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 변동이나 이동은 불리하다. 73년 몸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 동료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 다. 85년 만남이나 모임이 있어 즐거운 날이다.



38년 몸이 곤곤해지고 허약해 질수 있으니 건강관리 에 유념하라. 50년 안전사고에 의한 재물의 손실이 있으니 만사주의. 62년 배달사고나 기계고장 등으로 일이 지연. 74년 업무량이나 활동성이 증가되고 이 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. 86년 이성으로 갈등한 다. 득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을 보류하라.



39년 분실이나 물건을 두고 오니 잘 챙겨야한다. 51 년 과도한 재욕이 화를 부르니 정도를 지켜라. 63년 뜻하지 않는 손님이 방문하거나 방문을 하게 된다. 예의와 접대는 존경을 얻는다. 75년 열심히 일한 당 신이 아름답다. 성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. 87년 정보수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업을 가질 수 있다.



40년 일에 성과가 있으며 고민하던 일이 해결. 52년 친지나 벗을 만나고 전문가를 접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. 64년 나태함과 게으름이 후회를 낳으며 부부간 다툼이 된다. 76년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 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. 88년 공부보다는 아르바 이트나 직업 또는 금전 문제가 더 앞선다.



41년 변동시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상태 유지하 는게 바람직하다. 53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. 65년 자녀문제가 가정 불화로 확산 커진다. 77년 변동이나 변화가 필요하 며 금전 지출이 발생한다. 89년 이별에 아쉬움이 상 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.



수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라. 90년 매 매나 문서상 이익이 오니 미루지 말 것. 43년 자녀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 접한다. 55 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줄 것. 하 극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. 67년 모임이 있으면 차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. 79년 직업에 변화를

꾀하려 하거나 인기업종으로 변화를 주려한다. 91년

반가운 마음과 술이 나를 찾는다. 과음절제.

는 자제. 54년 문서운 계약운이 길하고 변동운도 원

만. 66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. 다툼. 소송건에서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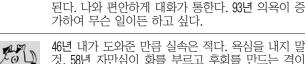
불리하니 신속한 타협점을 생각하라. 78년 작은 실



44년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을 얻으나 내일을 기 약하기에는 역부족. 56년 금전적 손실이 따르거나 형제, 동료간 논쟁 조심해야. 68년 관재구설수가 두 려우니 미연에 예방하라. 부부애정 적신호. 80년 시 원스런 소식을 접하고 만나는 이가 귀인이다. 92년



형제의 기쁜 소식을 듣거나 용돈이 생긴다. 45년 나눔을 주게 되거나 봉사할 일이 기다린다. 57 년 문서 매매 이동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관련 좋은 소식이나 일이 있다. 69년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니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때. 81년 새로운 교제가 진행



46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. 욕심을 내지 말 것. 58년 자만심이 화를 부르고 후회를 만드는 격이 니 나보다 상대를 중히 여김이 필요. 70년 업무과중 이나 윗사람의 충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. 82년 열심 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. 94년 우정에 불화

의 골이 깊어지니 신속하고 진심어린 배려가 필요.



47년 하던 일을 변동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추진하라. 무리수는 후회를 부른다. 59년 상가나 병원 등을 방 문하거나 본인이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. 71년 성과 가 있고 이익이 현실로 나타난다. 83년 취업이나 직 업변동이 오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한다. 95년 부모님 건강이 불리하니 옆에 있어주는 것도 위안이 된다.

